



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
따스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어떤 사이트에서 **화제**가 된 글



"드디어 자가격리가 끝났습니다"

전 세계가 **코로나19**로 인해
떠들썩한 이때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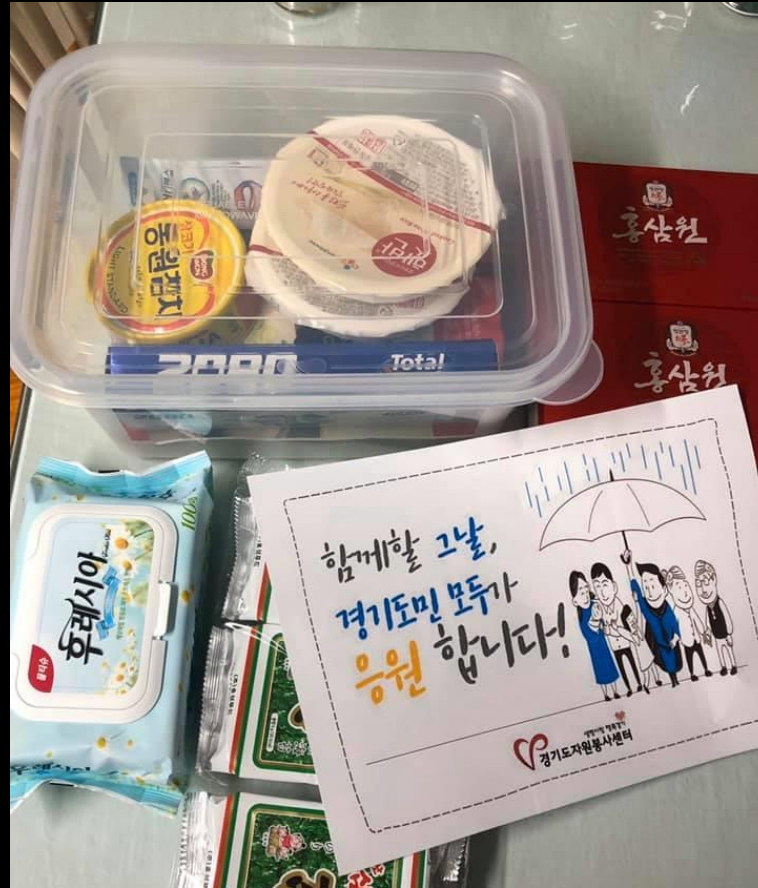
가족여행 후 동승한 승객이
확진 판정을 받아 우리 가족은
자가격리대상자가 되었습니다.



자가격리 후 찾아온
보건소 직원이 전달해준
생활수칙과 체온계, 소독제

매일 두 번, 체온과 이상증상,
필요한 도움을 묻는 전화에
느낀 단 한가지.

"우리나라의 공적체계는
훌륭히 잘 작동하고 있구나"



햇반, 김, 참치캔, 홍삼이
들어있는 상자를 주며

폐기물을 별도 수거한다는
말에 느낀 **안도감**

'안전히 관리되고 보호받고 있다'



격리생활을 하며 느낀 또 한가지,

'좋은 이웃은 큰 힘이 된다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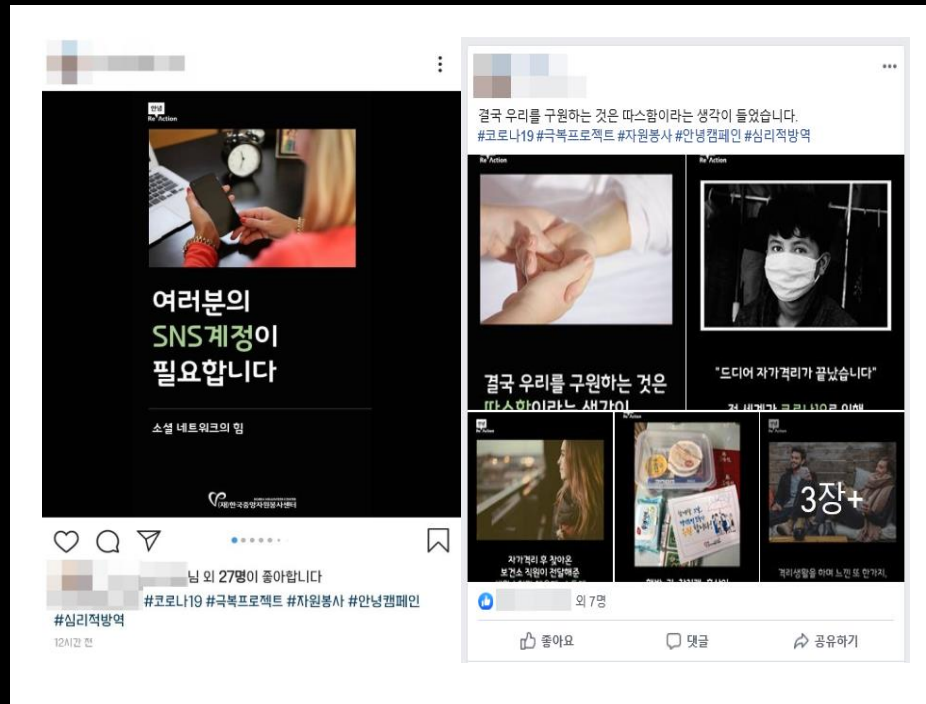
"격리생활의 답답함을 토로하자
이웃 부부가 맥주에 치킨, 콜라와
과자까지 사서 두고 가더군요"



재난 상황에서 가장
잃어버리기 쉬운 것

'배려심'

우리는 이것을
잃지 않아야 한다.



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페이스북에 접속,

코로나19 관련 카드뉴스의 사진과 내용을
복사하여 개인 SNS에 업로드하신 후

'#코로나19 #자원봉사 #안녕캠페인 #심리적방역'을
포함한 해시태그를 자유롭게 달아주세요

카카오톡을 통한 공유도 큰 힘이 됩니다.